

농어촌공사 경주시사, 가뭄 장기화에 용수 확보 총력전..비상체계 가동

✎ 박형기기자 | ⓒ 승인 2026.08.02

저수율 38.7%까지 하락...양수장·관정·긴급급수망 가동하며 농업용수 공급 확대



경주지역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가 가뭄 대응 비상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용수 확보에 나선 가운데 엔진양수기를 동원해 논에 긴급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사 제공

경주지역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 대응 비상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에 따르면 올해 경주시 누적 강수량은 321.7mm로 평년 대비 58.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기인 6~7월 강수량은 90.9mm로 평년의 31.2%에 불과해 농업용수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 관내 7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8.7%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주시사는 물관리 설명회 개최와 용수절약 현수막 설치 등 농업인 대상 절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양수저류시설 11개소와 대체급수 관정 2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배수로 농업용수 재이용 시설 15개소와 엔진양수기 35대를 긴급 투입하는 등 총 55개소의 가뭄 대응 시설을 가동 중이다.



경주소방서의 긴급 살수차 지원으로 논에 긴급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사 제공

아울러 경주소방서의 긴급 살수차 지원을 비롯해 민간 급수차와 레미콘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저수지 하류 지역과 용수 공급 취약 농경지를 중심으로 긴급 급수를 실

시하고 있다.

경주시사는 하천수 활용 확대와 배수로 퇴수 재이용, 신규 관정 개발 등을 통해 추가 수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용수 공급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철 공사 경주시사장은 “영농 현장의 물 부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용수 확보와 공급망 운영을 통해 농업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형기기자